

봉사학습 운영전략과 사례

볼런티어21 편집부 제공

I. 봉사학습 운영전략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처음 계획할 때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방법 등을 그들이 결정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청소년들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청소년들이 하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주체를 청소년으로 고정시킬 뿐 청소년 자원봉사를 기존의 성인중심 자원봉사와 크게 차별화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발달단계가 고려된 프로그램 기획이어야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획되어야 한다. 참고로 청소년들의 연령과 지적 수준에 맞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연령과 지적수준에 맞춘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달분야	중학생(6-8학년)	고등학생(9-12)
지성발달	·구체적 사고 ·현실과 현실에서의 경험가능성 중시 ·급속한 신체변화 ·짧은 집중력 주기 ·서투름	·추상적 사고력 발현 ·제도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사고의 연결 ·신체변화 정지 ·집중력 주기 증가 ·성인으로 대우 받기 원함
정체성 발달	·집단소속을 동경함 ·부모, 동료 및 성인으로부터의 긍정이 필요함	·자아정체를 찾음 ·자기 비판적 경행을 띠
사회성발달	·자아의식 발현 ·일치하고 싶은 강한 욕구 ·동료들의 압력에 매우 민감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함 ·동료들의 압력에 덜 민감 ·친구 선택에 신중을 기함

도덕성발달	·남을 돕는 일에 높은 관심을 가짐 ·윤리문제를 흑백논리 또는 사법적 태도로 보는 경향 견지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함	·독립적 사고 성향을 띠어감 ·자신이 세운 가치관에 매우 민감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이해 발생
연령층에 맞는 프로젝트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기획과 실천 ·기아해방 또는 무료급식소를 위한 식품수집 ·저학년 어린이 학습돕기 ·동료를 돕고 격려하는 활동기획	·각종차별(인종, 성, 연령, 학력, 출신 지역 등등)과 폭력 방지 ·주택, 사무실 수리 및 신축 ·수질 검사 및 향상을 위한 활동 ·장애인 돕기 및 장애시설에서의 보조 활동

표1)은 미국 ‘촛불재단’에서 1995년 발간한 ‘봉사학습을 위한 시설/학교 사이의 파트너쉽 형성안내’에서 발췌된 것임.

3.어른의 자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참여할수록 어른들의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무론이고 현재 참여자들이 성장해 나간 후 다음 대를 이을 청소년들이 참여케 하는 등 프로그램의 지속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

4.관련자 모두가 시작부터 함께 참여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가계 각층(종교, 언론, 학교, 기업, 학부모등)의 참여로 연대를 형성함이 중요하다.

5.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학교 간에 파트너쉽을 형성한다.

학교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봉사학습의 효과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고, 자원을 보다 많이 공유하여 서로 배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해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경우 ‘파트너쉽’ 이라고 하면 협동(Collaboration)을 연상한다. 그러나 뜻만 좋다고 일이 다 잘되지 않듯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협동관계 형성은 좌절만 가져온다. 그보다는 특정목표 성취를 위한 형태별 파트너쉽은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동(Collaboration)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협력→조정→협동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와 센터와의 파트너쉽 형성의 예를 아래의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표2)형태별 파트너쉽

형태	설명	중요요소	예
협력	·센터와 중고교 사이에 상호 유익한 정보를 교환한다.	·순쉬운 정보를 공유한다.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역할을 분담한다. ·봉사의 중심이 센터 또는 중고교 어느 한쪽에 있을 수 있다.	·센터는 중고교 교사 연락 명단을 만들어 수시로 어떤 봉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구한다. ·교사도 욕구를 알려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기획에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다.
조정	·센터와 중고교가 특정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한다.	·특정활동을 위해서 센터와 중고교는 만나서 계획한다.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는 기존의 것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많은 대화와 기획이 중요하다.	·중고교 자원봉사 담당교사와 센터의 실무자들이 함께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고 학습이 되기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한다.
협동	·센터와 중고교는 지도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투여하며 봉사학습을 위한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각자의 주체성을 지니고 공유하는 가운데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한다. ·기획과 의사소통에 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서로 간의 역할, 책임, 노력투여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가 있다.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자금을 구한다.	·관련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연계망이 형성되고 관련 학교들끼리 자원(물질, 인적)을 통합한다. ·파트너쉽을 이룬 학교들끼리 정부 또는 민간재단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II. 봉사학습사례

우리도 벼룩시장을 열어요

우리 나라 성인사회에서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벼룩시장 활동을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재사용, 재활용, 절약 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습관화하도록 돕는다.

1. 목표 및 성과

- 1) 재사용, 재활용, 절약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 2)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물건을 평소 잘 다루어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입장도 되어봄으로써 꼭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습관도 길러본다.

- 3) 한 번 산 물건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다.
- 4) 튼튼하고 검소한 것을 사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소중히 쓴다.

2. 구성

1) 습득하고 사용하는 기술

- 의사소통 기술
- 전시방법
- 독창성

2) 기본개념

- 벼룩시장이란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진 시장이다.
- 대상이 학생들인 만큼 물품을 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위주로 구성한다.
- 교환방식은 물물교환, 싼 가격으로의 구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사전단계

- 1)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벼룩시장을 찾아가 그 방법과 과정을 알아본다.
- 2) 학교에서 벼룩시장 활동을 소개하는 비디오 작품을 구해 시청한다.
- 3)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교환, 매매해 본 사람을 찾아 초청하여 그 방법을 배운다.
- 4) 벼룩시장 활동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는다.
- 5) 벼룩시장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에 대한 홍보, 전달이 있어야 한다.
- 6) 벼룩시장에 참가할 사람을 사전 조사해 참여 물품량을 조절한다.(학년, 학급별로 유동적이다.)

* 총 시간: 1~2주

4. 실행단계

- 1) 크게 참가자는 벼룩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학생으로 각 학년별로 한 달에 1번씩 참여한다.
- 2) 벼룩시장 참가자는 점심시간에 자신의 물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며 팔기도 사기도 한다.
- 3) 점심시간이 지나면 물품을 거두고, 일주일간 팔릴 때까지 전시할 수 있다.

* 총 시간: 각 학교 점심시간 이용, 일주일씩

5. 반성단계

- 이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어려웠던 점을 발표해보게 한다.
-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효과를 말해보게 한다.
- 벼룩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총 시간: 각 활동 끝나는 마지막 날 1시간씩

6. 추가 확대활동

- 1) 베품시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격려가 있도록 한다.
- 2) 이웃학교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타 학교 베품시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3)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이런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주위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시설아동을 위한 책 읽어주기과 느낌 공유하기

이 프로젝트는 부모님의 모두 계신 일반가정의 자원봉사학생들과 부모가 없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간의 우정이나 서로간의 격려, 사랑 등의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활동 내용의 진행에 따라 시간은 최소한 6개월로 잡고 있다.(1달에 격주로 2회 활동한다.)

* 대상 : 중학교 2학년

* 수혜자 : 시설에 있는 부모가 없는 아동(7세~11세 미만)

1. 필요성

- 1) 시설에 있는 대다수 아이들이 자신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회성이 아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 2) 학생들은 단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 3) 자원봉사자와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올바른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목표 및 기대효과

- 1)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2) 시설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시설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다.
- 3) 다른 사람의 필요성 등의 인식, 책임감, 신뢰성 등의 중요성을 배운다.
- 4) 자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의 소중함을 안다.
- 5) 자원봉사 청소년과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간의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서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며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 6)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정서함양에 도움 되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습득하고 사용하는 기술

- 1) 대화기술
- 2) 책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는 기술(표준어 사용)

- 3) 청취
- 4) 창의력
- 5) 구연동화 녹음 시 감정표현 기술

4. 준비물/자원

- 1) 책, 테이프
 - 책 : 다양한 분류의 책이 필요하다.
 - 테이프 : 구연동화의 내용이 들어 있는 카세트테이프, 책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 2) 지역사회 사람들
 - 구연동화를 잘 읽는 전문가
 - 책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서점, 출판사)
 - 도서관의 사서

5. 사전단계

- 1) 학생들이 자신들의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원이나 고아원 등을 인터뷰나 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한다.

* 선정내용

- 대상을 선정한다.(시설에 있는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서 7~11세 미만인 아동)
 - 자원봉사청소년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시설로 거리상 멀지 않은 곳으로 선정한다.
- 2) 자원봉사 할 시설에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그곳이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과 생활, 관리 등에 대해 듣고 시설을 견학한다.
 - 자원봉사 할 대상들에게 읽혀지는 책을 몇 권이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 읽고 싶은 책들이 무엇인지 선호도를 조사한다.(봉사대상을 위주로)
 -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한다.
 - 3) ‘봉사할 대상을 위한 책을 어떻게 모을까?’를 토론한다.
 - ① 7~11세 아동들에게 적합한 책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서점, 도서관, 출판사 등에 문의한다.)
 - ② 홍보활동을 한다.(활동은 역할분담을 한다.)
 - 홍보포스터를 제작한다.
학교, 지역 내에 있는 문화센터,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고 서점 등에도 붙인다.
 - 팸플릿을 만든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팸플릿을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는다.
 - 출판사나 서점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 4) ‘봉사할 대상을 위해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주고 느낌을 같이 공유할까?’를 토론한다.
 - ① 직접 읽어주는 방법
 - ② 구연동화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유의점 : 구연동화를 만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원봉사 학생이 직접 구연동화를 만든다.

③ 비디오를 이용하여 읽어주는 방법

* 소요기간 : 최소한 6~7주(3개월)

6. 실행단계

1)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 친밀한 관계를 먼저 형성한다.

- 간단한 게임 또는 오락
- 서로의 이름표 작성해주기
- 같이 간식 먹기

2) 준비단계

사전단계 4)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① 선정된 책을 직접 읽어준다.

- 아이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느낌(시설 아동을 위한 봉사 활동)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느낌을 공유한다.
- 아이들이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느낌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하이드]를 읽고 난 느낌이 '귀엽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여자아이의 웃는 얼굴 등으로 표현한다.

② 선정된 책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준비한 구연동화 테이프를 듣는다.

- 아이들은 테이프를 듣고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느낀 장면이나 생각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그림을 보고 함께 느낌을 공유한다.

③ 책의 내용이 담겨진 VTR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책은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부각시켜 줌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VTR을 보고 난 후의 느낌을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이 서로 각자 준비한 종이에 간단한 문장으로써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유비는 멋있다. 전쟁장면이 웅대하다. ...

* 소요기간 : 최소한 4~5주

7. 반성단계

1) 일지를 쓴다.(매 활동이 끝난 후에 작성한다.)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좋은 점은 무엇이었나? 책의 선정은 좋았는가? 아이들이 잘 참여하였는가? 서로의 느낌을 잘 공유하였는가?

2) 모든 활동이 끝나고 우리 얼마나 잘 했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한다.

자원봉사자들 스스로가 모든 활동이 끝난 후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활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활동에서 미흡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가?

* 소요기간 : 1주

8. 승인과 축하

1)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자신의 감명 깊게 느낀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을 모아 시설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2) 각자 느낌을 썼던 종이들을 모아 책들의 줄거리와 함께 엮어 하나의 조그마한 우리들의 문 집을 만든다.

9. 추가 확대활동

- 1)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활동내용을 PR해서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다.
- 2)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 3) 책을 읽는 방법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출처: 청소년 봉사학습 자료집, 최윤진 엮음. 1999.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전략, 이강현. 1999.

※ 본 원고의 저작권은 블런티어21에 있으며, 원고글의 사용은 블런티어21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